



numbers

vol. 323

이주민 선교 실태

한국교회 12%, 이주민 사역하고 있다!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① 첫인상에서의 호감 요인
- ② 한국의 고령화 실태 및 전망

[넘버즈 칼럼]

급변하는 한국경제와 크리스천의 경제윤리

2026. 2. 10.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한국교회 12%, 이주민 사역하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 258만 명 시대, 인구의 5%가 이주민인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이주민 선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목회적 과제가 되었다. 최근 한국교회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주민 사역을 핵심 선교 영역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국내 이주민 선교 조사’(한국교회 트렌드 2026) 결과를 보면 현재 이주민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교회는 12%로 나타났는데, 현재의 이주민 증가 현상과 맞물려 이주민 사역은 지속적인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주민 사역 교회 내 이주민 비율은 증가(68%)하고 있고, 향후 이주민 사역을 ‘더 확대’(86%) 하겠다는 비율도 압도적이다.

좀 더 희망적인 지표는 성도들의 준비된 마음이다. 현재 사역을 하지 않는 교회의 성도 중 무려 68%가 이주민 사역 참여 의향을 밝히며 사역의 든든한 잠재적 동력이 되어주고 있다.

이번 <넘버즈323호>에서는 이주민 사역의 현주소와 향후 전망을 다룬다. 한국 선교의 중심축이 이주민으로 옮겨가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한국교회가 구체적으로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주민 선교 조사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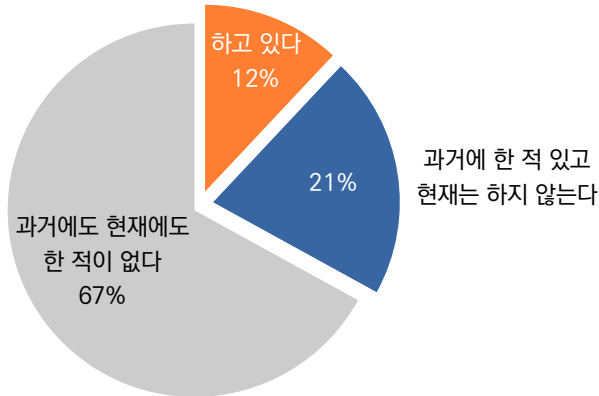
구분	이주민 선교 단체	이주민 선교 목회자	일반 목회자	일반성도
조사 대상	이주민 선교 중인 선교단체 (대표 또는 성장급 이상)	이주민 선교 사역 중인 목회자	전국의 담임목사	만 19세 이상 기독교인 (교회 출석자)
표본 규모	총 60단체(유효표본)	총 95명(유효표본)	총 500명(유효표본)	총 1,000명(유효표본)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 (이메일 및 카톡을 통한 URL 발송)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표본 추출	편의추출(Convenience Sampling)			- 지역/성/연령별 개신교인 비례할당 - (목회데이터연구소, '2023년 국민 종교분포 및 종교 현황 조사'에 근거하여 모집단 비율을 추출함)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목회자 조사는 교회 규모를 고려한 가중치 부여)			
조사 기간	2025년 5월 28일 ~ 6월 10일 (총 14일간)		2025년 6월 2일 ~ 6월 10일 (총 9일간)	2025년 5월 15일 ~ 5월 22일 (총 8일간)
조사 주체	목회데이터연구소 / 희망친구 기아대책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01

[교회의 이주민 선교 현황] 한국교회 12%, 이주민 사역하고 있다

- 목회자를 대상으로 이주민 사역 여부를 조사한 결과, 현재 '하고 있다'는 응답은 12%로, 교회 8곳 중 1곳만이 이주민을 위한 구체적인 사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 '과거에 한 적 있고 현재는 하지 않는다' 21%로 나타나, 교회 3곳 중 1곳(33%)이 이주민 사역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중단한 교회도 상당수 존재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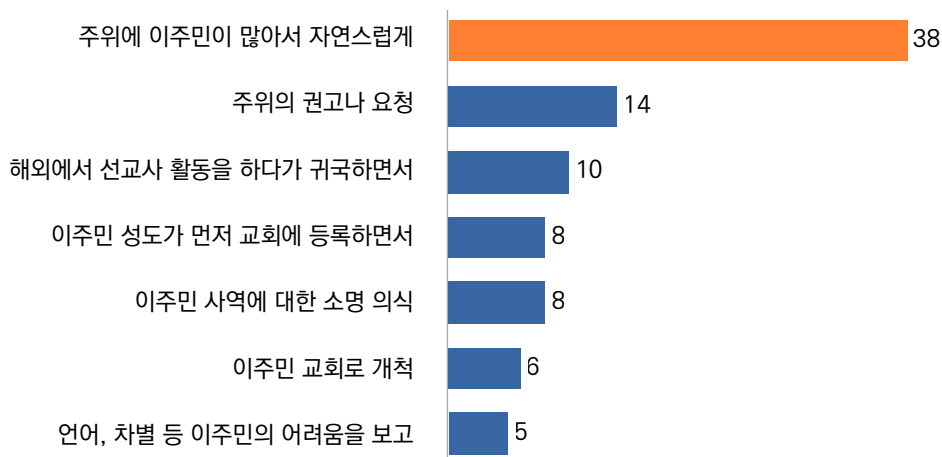
[그림] 이주민 사역 여부 (일반 목회자 전체)



이주민 사역 계기 1위, '주변에 이주민이 많아서'!

- 이주민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는 '주위에 이주민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시작했다는 응답이 3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주위의 권고나 요청'(14%), '해외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다가 귀국하면서'(10%) 순이었다.
- 이는 이주민 사역이 교회의 명확한 사명이나 사전 기획된 프로그램에서 출발하기보다, 교회가 위치한 지역의 인구 변화와 일상적인 만남 속에서 촉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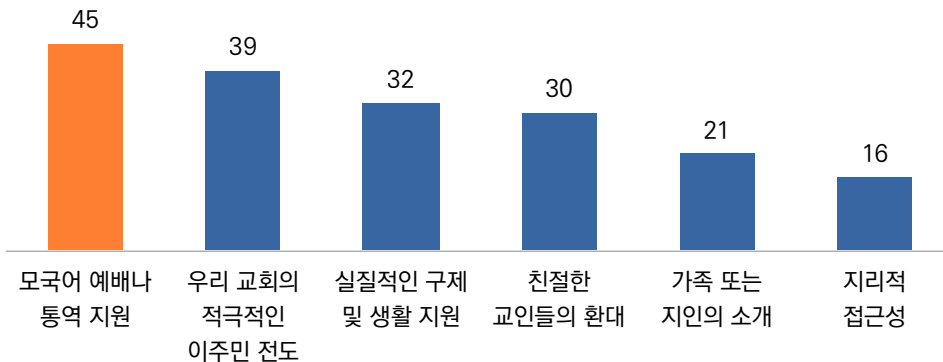
[그림] 이주민 사역 계기 (이주민 사역 교회 목회자, 상위 7개, %)



이주민 교회 출석의 출발선, ‘모국어 예배/통역 지원’(45%)!

- 이주민 사역 교회 목회자에게 이주민이 현재 교회에 출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를 물은 결과, ‘모국어 예배나 통역 지원’이 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교회의 적극적인 이주민 전도’(39%), ‘실질적인 구제 및 생활 지원’(32%) 등의 순이었다.
- 이는 이주민의 교회 출석과 정착을 위해서는 언어 장벽 해소와 생활 밀착형 지원이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그림] 이주민이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 (이주민 사역 교회 목회자, 1+2순위, 상위 6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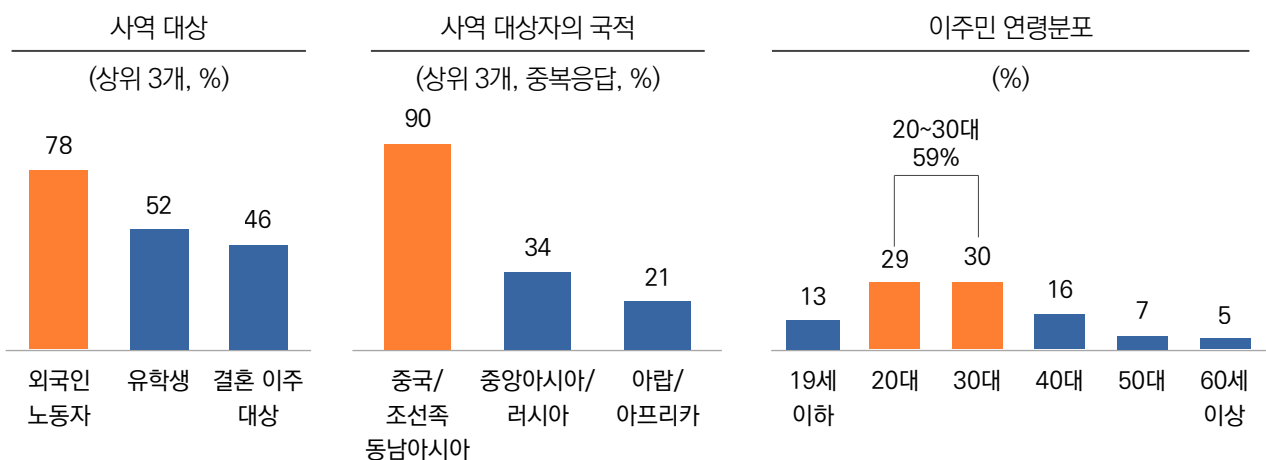
02

[이주민 사역 교회의 실제]

이주민 성도 ⇒ 외국인 노동자/중국·동남아 출신/20~30대!

- 이주민 사역 교회에 출석하는 이주민들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사역 대상은 ‘외국인 노동자’가 78%로 가장 많았으며, ‘유학생’(52%), ‘결혼 이주 대상’(46%)이 그 뒤를 이었다.
- 교회 출석 이주민의 국적은 ‘중국/조선족/동남아시아’ 출신이 대다수(90%)였고, 연령대는 ‘20~30대’가 5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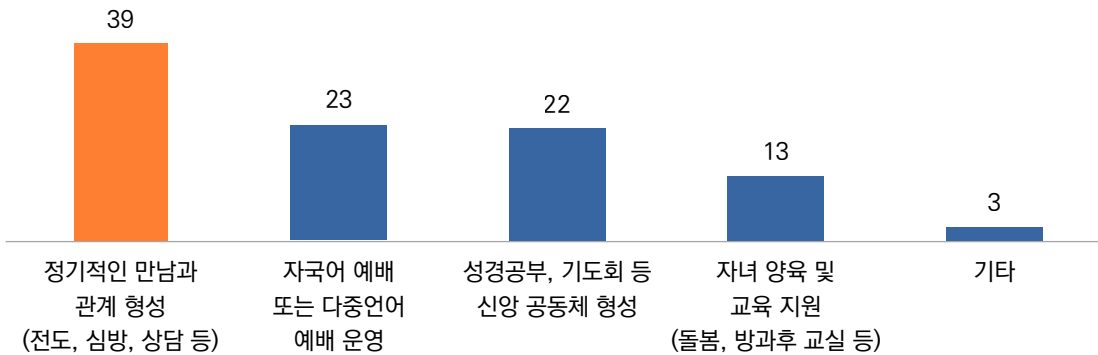
[그림] 이주민 사역 교회의 이주민 특성 (이주민 사역 목회자)



이주민 목회 효과적 방법, 정기적 만남과 관계 형성!

- 이주민 사역 교회 목회자에게 이주민 목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묻은 결과, '정기적인 만남과 관계 형성(전도, 심방, 상담 등)'이 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이어 '자국어 예배 또는 다중언어 예배 운영'(23%), '성경공부·기도회 등 신앙 공동체 형성'(22%)이 뒤를 이었다.
- 이는 이주민 목회는 예배 형식이나 프로그램 중심 접근보다, 반복적 접촉과 신뢰 축적을 통한 관계 형성이 가장 핵심적인 사역 방식임을 보여준다.
- 앞서 이주민이 교회에 발을 들이게 하는 출발점이 '모국어 예배·통역 지원'과 같은 언어 장벽 해소라면, 그들이 교회에 머물고 신앙생활을 지속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은 '정기적인 만남과 관계 형성'인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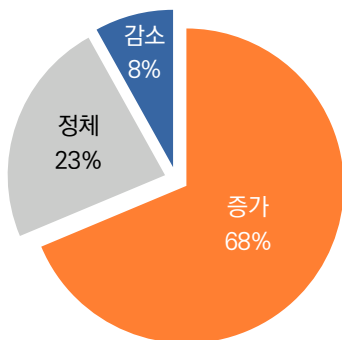
[그림] 이주민 목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이주민 사역 교회 목회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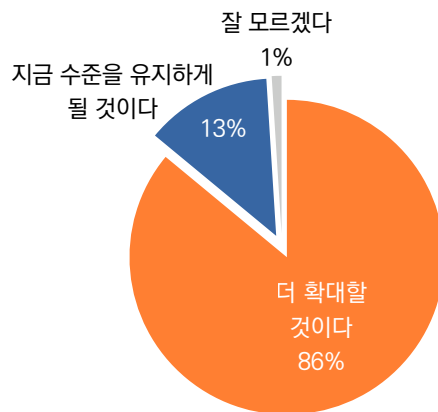
국내 이주민 사역, 지속적인 확장 중!

- 이주민 사역 교회 10곳 중 7곳(68%)에서 교회 내 이주민 성도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응답해, 이주민 사역의 규모와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향후 이주민 사역 계획을 물었는데, 이주민 사역 교회 목회자 대부분(86%)은 '더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은 13%에 그쳤다.
- 이는 이주민 사역이 일시적 대응이나 선택적 사역을 넘어, 현재의 이주민 증가 현상과 맞물려 교회 사역의 중요한 축이자 중장기적으로 지속해야 할 사역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교회 내 이주민 비율 추이 (이주민 사역 교회 목회자)



[그림] 향후 이주민 사역 계획 (이주민 사역 교회 목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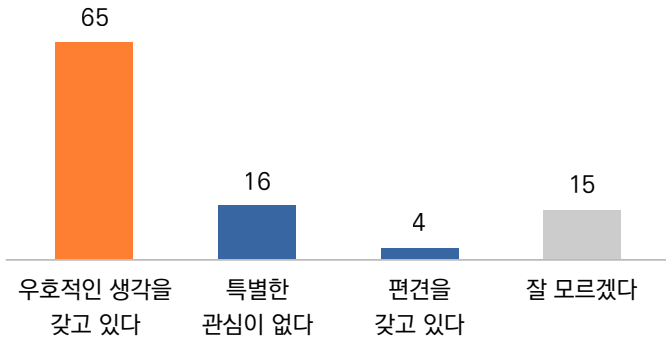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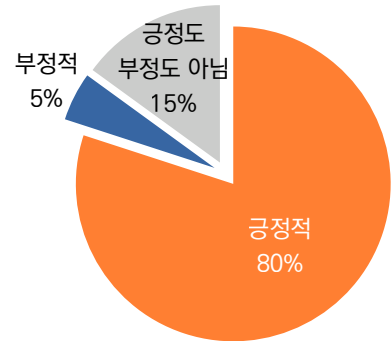
[이주민 사역에 대한 한국인 성도들의 인식·경험] 이주민 사역 교회 한국인 성도, 이주민에 대해 우호적!

- 이주민 사역을 하는 교회 내 한국인 성도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성도 3명 중 2명(65%)은 이주민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을 보였고, ‘편견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에 불과했다.
- 또한 이주민 사역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긍정적’(80%)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그림] 이주민 사역 교회 내 한국인 성도들의 이주민 인식
(출석교회가 이주민 사역을 하는 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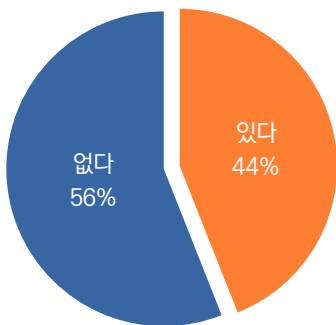
[그림] 이주민 사역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
(이주민 사역 교회 목회자,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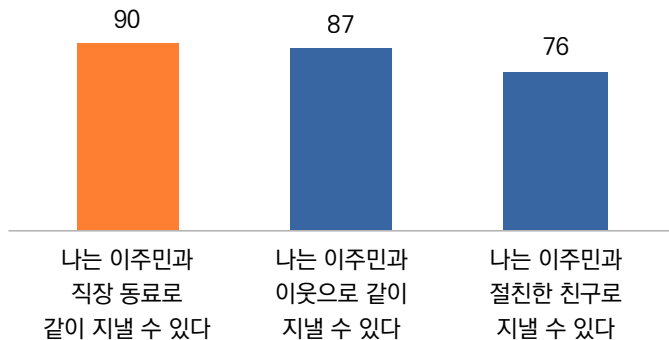
성도 76%, 이주민과 절친한 친구 O.K!

- 성도를 대상으로 이주민과의 실제 교류 경험을 묻은 결과, ‘교류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44%로 절반에 가까웠다.
- 이주민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이주민과 직장 동료로 지낼 수 있다’는 응답이 90%, ‘이웃으로 지낼 수 있다’는 응답이 87%, ‘절친한 친구로 지낼 수 있다’는 응답도 76%에 달했다.
- 이는 실제 교류 경험의 유무와 관계없이, 성도들 사이에서 이주민과의 관계 형성 전반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낮고 수용성이 높게 형성돼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이주민과 실제 교류 경험 (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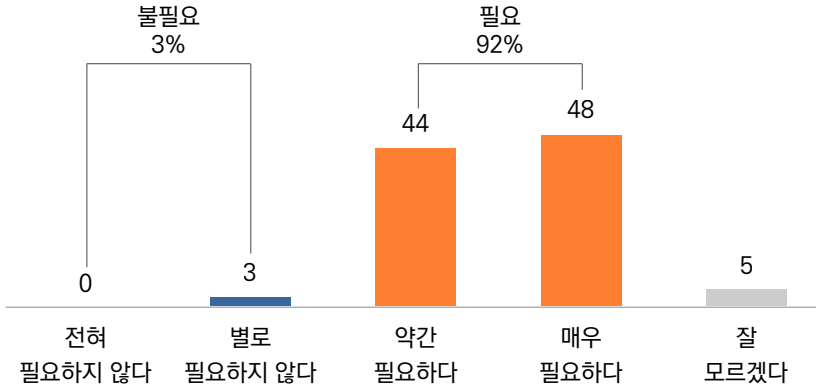
[그림] 이주민과의 관계 인식 (성도,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4점 척도, %)



일반성도 대부분, 이주민 사역 '필요하다'!

- 이주민 사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성도 대다수(92%)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특히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48%로 절반에 가까워, 성도들 사이에서 이주민 사역을 교회의 중요 사역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림] 이주민 사역의 필요성 (성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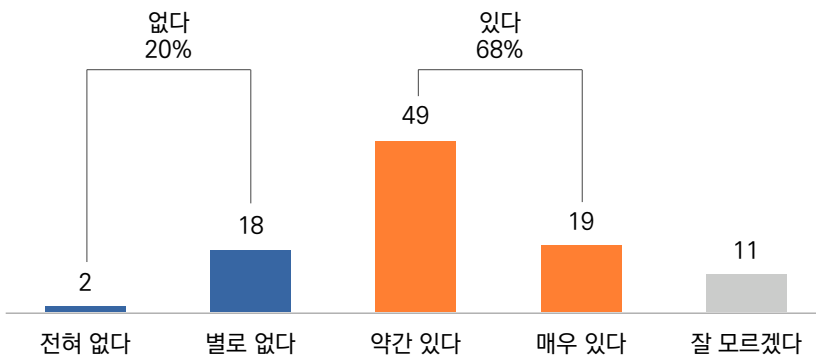


04

[이주민 선교의 확장 가능성] 일반성도 68%, 향후 이주민 사역 참여 의향 있다!

- 현재 출석 교회에서 이주민 사역을 진행하지 않는 성도를 대상으로, 향후 이주민 사역이 시작될 경우 참여 의향을 묻은 결과, 성도의 68%가 '참여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 특히 이 가운데 참여 의향이 '매우 있다' 비율은 19%로 나타나, 5명 중 1명은 적극적 참여 의지를 보였다.
- 이는 이주민 사역이 새롭게 시작될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자발적 참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 기반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향후 출석 교회가 이주민 사역할 경우 참여 의향 (출석교회가 이주민 사역을 안 하는 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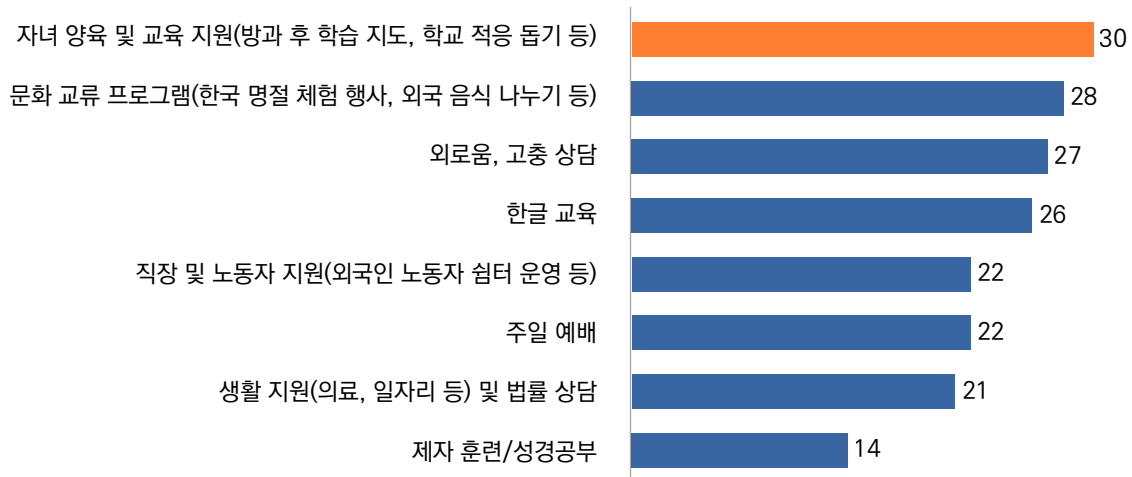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이주민 사역의 핵심 과제, 자녀양육 지원·문화 교류·외로움 해소!

- 이주민 사역에 가장 필요한 활동을 묻은 결과,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이 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문화 교류 프로그램'(28%), '외로움 및 고충 상담'(27%), '한글 교육'(26%)이 비슷한 수준으로 뒤를 이었다.
- 이는 이주민 사역의 핵심 필요가 예배나 제자훈련 이전에, 자녀 교육·문화 적응·외로움 해소와 같은 일상 밀착형 영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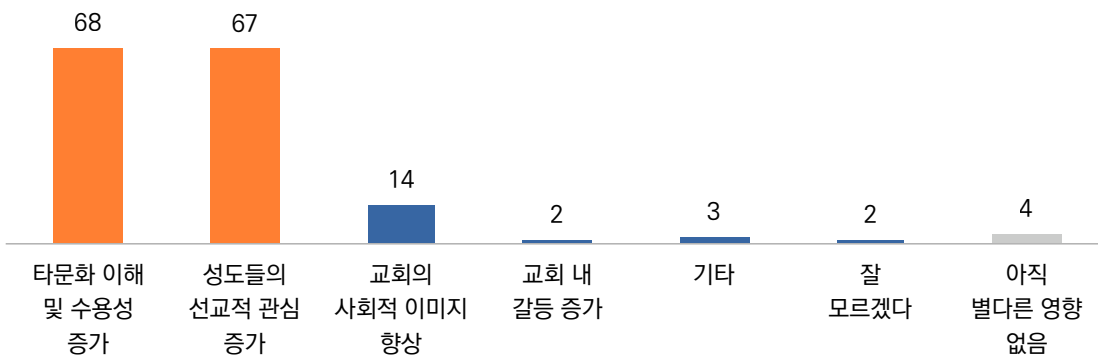
[그림] 이주민 사역에 가장 필요한 활동 (성도, 1+2순위, 상위 8개, %)



이주민 사역의 영향, 성도들의 타문화 이해·선교적 관심 증가!

- 이주민 사역이 한국인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으로는 '타문화 이해 및 수용성 증가'(68%)와 '성도들의 선교적 관심 증가'(6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응답된 '교회의 사회적 이미지 향상'(14%)도 긍정적 효과였다.
- 반면 '교회 내 갈등' 등 부정적 영향은 2%에 불과했다.

[그림] 이주민 사역이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주민 사역 교회 목회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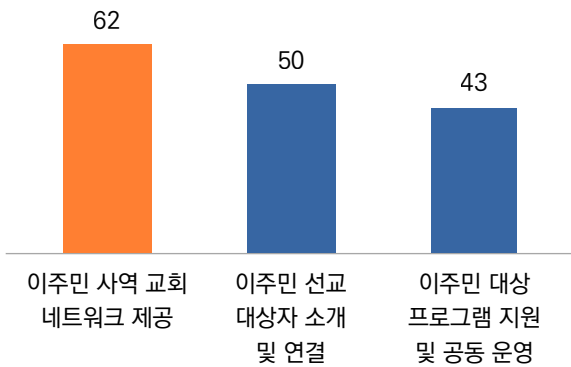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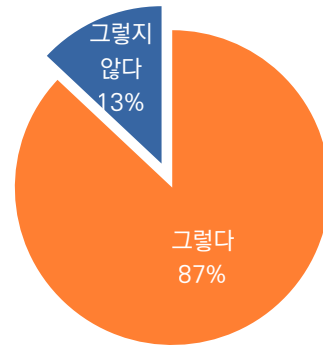
[이주민 사역 단체의 현실] 지역교회와의 협력, 실제 이주민 사역에 큰 도움!

- 이주민 선교 단체는 지역교회와 어떤 관계에 있을까? 이주민 선교 단체를 대상으로 지역교회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이주민 사역 교회 네트워크 제공'(62%)을 가장 큰 도움으로 꼽았고, 이어 '이주민 선교 대상자 소개 및 연결'(50%), '이주민 대상 프로그램 지원 및 공동 운영'(43%) 순이었다.
- 또한 이주민 선교 단체의 87%는 지역교회와의 협력이 실제 이주민 사역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해, 이주민 선교에 있어 지역교회와의 협력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지역교회에 도움을 주는 것 (이주민 선교 단체, 상위 3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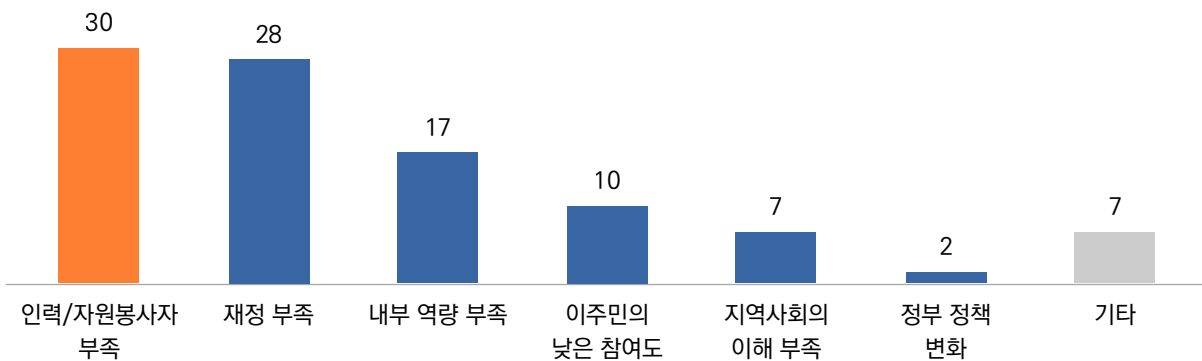
[그림] 지역교회와의 협력의 효과* (이주민 선교 단체, 4점 척도)



이주민 사역의 어려움, '인력/재정 부족'!

- 이주민 사역 단체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내부적 자원 부족에 집중되어 있었다. '인력/자원봉사자 부족'(30%)과 '재정 부족'(28%)을 가장 높게 꼽아, 인적·물적 한계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 이는 '이주민의 낮은 참여도'(10%)나 '지역사회의 이해 부족'(7%) 등 외부적 요인보다 사역을 지속하기 위한 실질적인 동력 확보가 더 시급한 과제를 보여준다.

[그림] 이주민 사역의 어려운 점 (이주민 선교 단체, %)



이번호 요약

1. 한국교회 12%, 이주민 사역하고 있다

- 목회자 대상으로 이주민 사역 여부를 묻은 결과, 현재 '하고 있는' 교회는 12%로 나타났다.

2. 국내 이주민 사역, 지속적인 확장 중!

- 이주민 사역 교회 10곳 중 7곳(68%)에서 교회 내 이주민 성도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향후 이주민 사역 계획에 대해서도 이주민 사역 교회 목회자의 86%는 더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해, 이주민 사역이 속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일반성도 68%, 향후 이주민 사역에 참여 의향 있다!

- 현재 출석 교회에서 이주민 사역을 진행하지 않는 성도를 대상으로, 향후 이주민 사역 시 참여 의향을 묻은 결과, 성도의 68%가 참여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영상] 세계를 품는 '교육 선교' | 이주민 자녀 학교 존재의 의미와 이유 (CGN, 유해근 대표(나섬공동체))

관련 성경 구절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 34절)

목회 적용점

국내 거주 외국인 258만 명 시대! 이번 조사는 이주민 선교가 더 이상 특수 사역이 아닌 한국교회의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목회적 과제로 급부상했음을 보여준다. 현재 이주민 사역을 수행 중인 교회는 12%에 불과하지만, 현장 사역자들의 확장 의지(86%)와 성도들의 높은 참여 의향(68%)은 이주민 선교가 향후 한국교회 선교의 핵심 동력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사역의 잠재력이다. 이주민 사역을 하지 않는 교회의 성도 68%가 이주민 사역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은 현장 목회자들이 우려하는 성도들의 거부감이 실제로는 '준비된 환대'로 전환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따라서 교회는 '관계 중심적 환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거창한 프로그램보다 이주민과의 '정기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 이주민을 수혜자가 아닌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수용하는 문화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해외 선교사의 80% 이상이 한국에 돌아가면 이주민 사역을 하겠다고 의견을 피력하고 있고, 실제 한국에서 이주민 사역하는 교회들이 언어, 문화 등 이주민을 연결시킬 사역자가 필요한데 향후 해외 한인 선교사의 국내 이주민 사역 현장으로의 사역 전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주민 선교의 확장은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공공성'과 '환대의 영성'을 회복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첫인상에서의 호감 요인
2. 한국의 고령화 실태 및 전망

넘버즈 칼럼

급변하는 한국경제와 크리스천의
경제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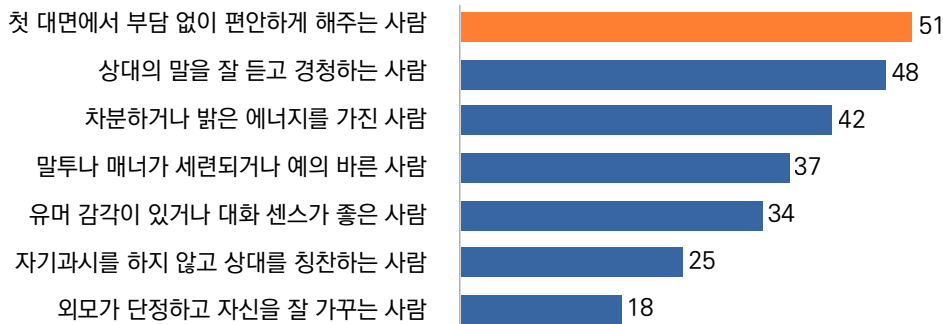


[첫인상에서의 호감 요인]

첫인상 호감요인, '심리적 편안함·경청하는 태도·밝은 에너지!'

-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호감을 느낄까? 첫인상에서 호감을 주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첫 대면에서 부담 없이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51%)을 가장 높게 꼽았다. 이어 '상대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하는 사람'(48%), '차분하거나 밝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42%)도 중요한 호감 요인으로 나타났다.
- 이는 첫인상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가 호감 형성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전도할 때나 교회에서 사람들과 관계할 때, 성도와 목회자들이 참고할 만하다.

[그림] 첫인상에서 호감을 주는 요인 (일반국민, 1+2+3순위, 상위 7개, %)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5 인간관계인식조사] 무엇이 첫인상을 결정할까? 평소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노력은?, 2026.02.03.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5.12.05.~12.08.)

여성은 경청하는/밝은 에너지 있고/유머감각 있는 사람에게 호감 느껴!

- 첫인상 호감 요인에는 성별, 연령별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은 남성보다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 '차분하거나 밝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 '유머 감각이나 대화 센스가 좋은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는 경향이 더 강했다.
-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에서는 '경청하는 사람'을 꼽은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반면 '20대'에서는 '외모가 단정하고 자신을 잘 가꾸는 사람'(33%)에게 호감을 느끼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아 다른 세대보다 외형적 요소를 더 중시함을 보여준다.

[표] 첫인상에서 호감을 주는 요인 (일반국민, 성별/연령별, 1+2+3순위, 상위 7개)

		첫 대면에서 부담 없이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상대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하는 사람	차분하거나 밝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	말투나 매너가 세련되거나 예의 바른 사람	유머 감각 있거나 대화 센스가 좋은 사람	자기 과시를 하지 않고 상대를 칭찬하는 사람	외모가 단정하고 자신을 잘 가꾸는 사람
전체		51%	48%	42%	37%	34%	25%	18%
성별	남성	50%	45%	38%	37%	29%	27%	20%
	여성	53%	52%	46%	36%	39%	22%	17%
연령	18~29세	48%	29%	41%	40%	37%	13%	33%
	30대	41%	38%	39%	44%	37%	20%	22%
	40대	53%	47%	39%	38%	35%	20%	17%
	50대	52%	56%	44%	32%	30%	31%	14%
	60대	56%	56%	46%	36%	34%	26%	17%
	70세 이상	56%	60%	44%	33%	32%	35%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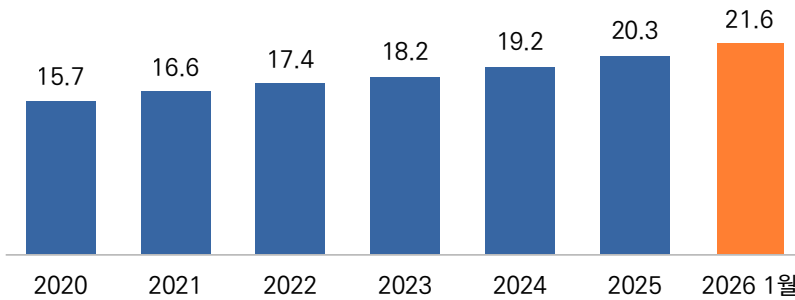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5 인간관계인식조사] 무엇이 첫인상을 결정할까? 평소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노력은?, 2026.02.03.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5.12.05.~12.08.)



[한국의 고령화 실태 및 전망]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21% 돌파

- 한국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2025년 초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섬) 문턱을 넘어섰다. 이는 5명 중 1명이 노인(65세 이상)임을 의미한다.
- 2026년 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은 21.6%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림] 한국 고령인구(만 65세 이상) 비율 (2020~2026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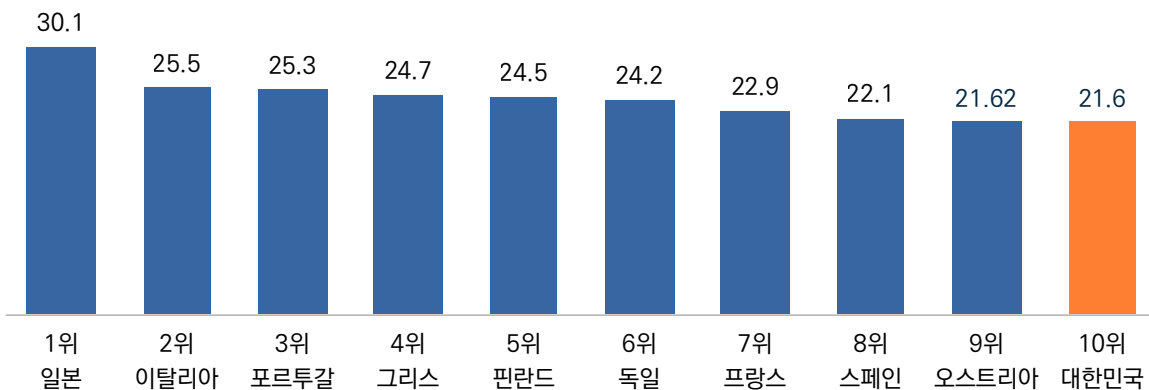


※출처 : 국민일보, 한국 고령 인구비중 OECD 10위로 '경충'... 재고용 확대 주택연금 활성화 시급, 2026.02.02.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69937515>)

한국 고령인구 비중, OECD 10위!

- OECD 회원국의 고령인구 비중 순위(상위 10개)를 살펴보면 올해 1월 기준, 한국(21.6%)은 10위를 기록했고, 1~3위는 각각 일본(30.1%), 이탈리아(25.5%), 포르투갈(25.3%)이 차지했다.

[그림] OECD 회원국 고령인구 비율 순위 (2026.01. 기준, 상위 10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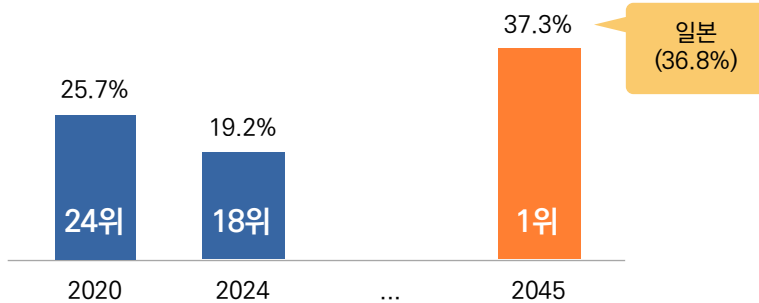


※출처 : 국민일보, 한국 고령 인구비중 OECD 10위로 '경충'... 재고용 확대 주택연금 활성화 시급, 2026.02.02.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69937515>)

한국, 2045년이면 OECD 최고령 국가될 것 예상!

-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고령인구 비율 순위는 2020년 24위였는데, 2024년 18위까지 올라갔고, 앞으로 약 20년 후인 2045년이면 37.3(1위)%로 일본(36.8%)을 제치고 OECD 최고 고령화 국가로 등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OECD 회원국 중 한국 고령인구 비율 순위 변화/예상



※출처 : 국민일보, 한국 고령 인구비중 OECD 10위로 '경충'... 재고용 확대 주택연금 활성화 시급, 2026.02.02.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69937515>)

※출처 : 데일리굿뉴스, 2045년 韓고령인구 세계 최고 전망...전체 인구의 37%, 2024.12.11.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42363>)

급변하는 한국경제와 크리스천의 경제윤리

조성봉 교수
(송실대 경제학)

급변하는 한국경제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의 급변 속에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를 마주하고 있다. 작년 6월 불과 2,700선에 머물던 코스피 주가지수가 지난 1월 말에 5,000을 돌파했다.2) 그러나 주가지수의 폭등은 한국경제가 급성장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2025년 4분기 경제성장률은 -0.3%로 경제가 역성장하였다. 2023년에 1,200원대에 머물던 달러 환율이 2026년에 들어서면서 1,450원을 넘어 1,500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

전 세계적인 AI 돌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2022년 11월에 등장한 ChatGPT의 등장으로 전 세계는 AI 열풍에 휩싸여 있다. 현재 시가총액 순위는 NVIDIA, Google(Alphabet), Apple, Microsoft, Amazon, TSMC 등 대부분 AI 관련 IT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주식시장도 이로 인해 큰 성장세에 있다. 미국의 주가지수를 대표하는 다우존스 지수가 불과 2년전 37,000수준에서 현재는 49,000을 상회하고 있다.

이처럼 시가 주도하는 세계와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세로 말미암아 우리 국민의 주식투자 바람도 거세게 불고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 개미'들이 많아지고 있다. 한국의 개인, 기관투자자 및 연금이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2025년도 1~11월까지의 한국의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는 663억 달러에 달함으로써 미 재무부가 집계한 77국 중 최대를 기록했다.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 연금, 개인이 미국 증시에 많이 투자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대 최대의 수출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최근 달러 환율이 급등한 이유는 이처럼 한국에서 미국 증시로 달러가 대량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주식투자에 성공하고 시를 잘 익히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소외감을 느끼고 자신만이 뒤쳐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느낀다. 다른 사람들은 잘 나가는 빅테크 기업에 투자하여 돈을 벌고 또한 AI도 능수능란하게 활용하여 앞서가고 있으나 자신은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 맞추어 제대로 돈도 벌지 못하고 최신 기술이나 AI 같은 것도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자괴감도 든다. 이런 소외감과 두려움은 마음의 평안을 잃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나도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강박감도 나타난다. 그러나 성경과 예수님은 이런 조급하고 분요한 마음을 경계한다.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이처럼 급변하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또한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단련하고 연마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

K자형 한국경제의 성장 속에 흔들리는 청년 세대

한국경제의 각종 지표는 무척 혼란스럽다. 주가지수와 수출을 보면 한국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그 잠재력이 폭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반대로 경제성장률은 퇴조하고 환율이 급등하여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한국경제의 본질적인 경쟁력이 좋아졌다는 것인가?

한국경제는 현재 K자형 성장에 놓여 있다. 전체적인 호황이라기보다 반도체, 방산, 조선 등 일부 산업의 호조가 주가지수의 급등을 가져오고 있다. 반면에 그동안 우리 제조업의 기반을 이뤘던 철강, 석유화학 등의 업종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작년 수출이 7,097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고 작년 경제성장률이 최근 5년 중 최저인 1%를 기록하였다.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일부 IT 기업을 제외하면 경제성장률이 0.4%에도 미치지 않는다. (이하 생략)

*칼럼 전문은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koreanchristianethics.com/archive/2961>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651호 \(2026년 2월 1주\)](#)

- 지방선거 결과 기대, 양대 정당 대표 역할 평가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174호 \(2026년 2월 1주\)](#)

- 국정운영 평가, 부동산 정책 평가, 지방선거 성격, 1.29 부동산대책 평가

[한국인 31% “정치가 최대 문제”…세계 다섯 번째로 높아](#)

중앙일보_2026.2.5.

사회 일반

[성인 4명 중 1명만 '계층이동 활발'…"성공에 부모 영향 커서"](#)

연합뉴스_2026.2.8.

[강남구 비만을 20%·흡연을 9%…서울시 최저](#)

연합뉴스_2026.2.5.

[\[단독\] 외국인이어서… 경제적 부담에… 3년간 400여명 '버려진 죽음'](#)

국민일보_2026.2.6.

[“그 드라마, 미쳤던데?”…국민 70% 단어 다른 뜻으로 쓴다](#)

동아일보_2026.2.5.

[요양원이요? 황혼호텔로 불러주세요…금융사 진출에 급 달라졌다](#)

매일경제_2026.2.3.

[탈모\(脫毛\) 관련 조사](#)

매일경제_2026.1.29.

[90년대생 엄마가 온다], (중앙일보)

[안 낳거나 둘 낳거나…90년대생의 출산 결심 _2026.2.4.](#)

["청약 되고 직장 안정되니…" 8년 딩크 끝낸 동갑내기 부부 _2026.2.4.](#)

[엄마 되면 52%가 커리어 포기…이 공포가 '비출산 신념' 만들었다 _2026.2.5.](#)

[미혼 남녀 소개팅에 7억 쏟은 지자체…"그런다고 애 낳겠냐" _2026.2.5.](#)

아동 · 청소년 · 청년

[“친구 대신 제미나이와 얘기해요”… 초등생까지 파고든 AI](#)

국민일보_2026.2.5.

[구리·남양주·인천 '의대 학군지' 급부상…대치맘도 이사 고민](#)

매일경제_2026.2.3.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수험생 67% “수능 기대 이하”…성적 낮을수록 상향지원](#)

동아일보_2026.2.4.

["큰 포부 대신 현생 중시"…코로나 후 대학생들이 변했다](#)

중앙일보_2026.2.4.

[집 밖 안나가는 '은둔 청년' 사회적 비용 연간 5.3조원](#)

연합뉴스_2026.2.5.

경제 · 기업

[엄마는 80%, 딸은 18%…1월 불장, 수익률 가른 결정적 이유](#)

중앙일보_2026.2.4.

건강

[안아프고 사는 건강수명, 8년만에 70세 깨졌다](#)

조선일보_2026.2.9.

[나를, 서서히 '잊어버리고 결국 지워버린다'...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질병 '치매'](#)

매일경제_2026.2.3.

기독교 · 종교

[헌금 양극화 뚜렷…교회 밖 '기부' 의향도 높아](#)

기독교연합신문_2026.2.3.

[영국판 MZ세대 '조용한 부흥'… 착시인가 실재인가?](#)

기독교연합신문_2026.2.4.

[뒷모습이 아름다운 은퇴를 위해], (국민일보)

[〈상〉 다가온 은퇴, 준비안된 교회 _2026.2.3.](#)

[〈하〉 해외교회는 준비 어떻게 하나 _2026.2.4.](#)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원로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주)디엔텍세븐컨설팅, 대한예수교장로회총교회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정책연구소, 라잇나우미디어,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치움, 크리스찬타임스, 퓨처처치연구소(FCI),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 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후원 방법 (국내)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방법 (해외)

외국에서 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신규 후원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덕계중앙교회(담임목사 정웅), 광현교회(담임목사 한상욱), 하늘꿈연동교회(담임목사 장동학), 대지교회(담임목사 신정일), 임영성도교회(담임목사 김종기), 문화촌교회(담임목사 한웅), 꿈꾸는교회(담임목사 박종철), 영광교회(담임목사 정병운), 인강영락교(담임목사 장대영)

목회데이터연구소 출간 도서

※ 책 구입 문의 : 02-322-0726, 유명민 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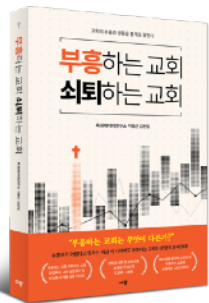


「한국교회 트렌드 2026」 (희망친구 기아대책 공동 출간)

2026년도 예상되는 한국교회 이슈와 트렌드 10가지를 주제로 선정하였는데, 이 책이 목회 전략을 수립하는데 올바른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담임목사, 성도를 총 1,320명 조사하여 각각의 특징을 통계적으로 규명하였습니다.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 5대 영역별로 성도, 목회자, 청소년, 선교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를 통해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진단했습니다.

Upward

건강한 교회의 맥박
예배

Forward

변화된 삶을 위한 양식
교육

Inward

그리스도의 몸
친교

Outward

예수의 섬김
봉사

Onward

지속되어야 할 대위임령
선교

책 구입 안내

AI 코파일럿 시대 디지털 목회 전략 웨비나

저희 연구소와 MOU기관인 **라잇나우미디어**에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디지털 전략 웨비나로 목회자님을 초청합니다.

- 1) 주제 : AI 코파일럿 시대, 디지털 목회 전략
- 2) 일시 : 2026년 2월 26일(목) 14:00~16:00
- 3) 장소 : Zoom (신청자에 한해 링크를 공유)
- 4) 참가비 : 무료
- 5) 문의 : 1533-7104

웨비나 신청하기



「2025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 출간 (비매품)

- 2025년 작년 한해 동안의 <넘버즈>를 모아 엮은, 「2025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 VOL.7」을 출간하였습니다. 책 제작을 위해 재정 후원을 해주신 한소망교회(원로목사 류영모, 위임목사 최봉규)에 감사를 드립니다.
- 후원자에게 책을 발송합니다. 책을 받지 못하신 분은 연구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2-322-0726)

휴간 안내

다음주(2월 17일) [넘버즈]는 설 연휴로 한 주 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